

김 지사,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과 지속 소통

CEO 지식향연서 기업인과의 만남 등 친기업 환경조성 전력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등 친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관)이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빠르게 변

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상호 간에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해 6월 처음 열린 CEO 지식향연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김관영 지사는 CEO 지식향연을 처음 선보인 자리에서 감사로 나서 '함께 혁신, 함께 성장, 새로운 전북'이란 주제로 친기업에 입각한 도의 각종 정책과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CEO 지식향연 또한 재단 이용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이날 교류의 장에는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이 감사로 나서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주제로 2024년을 관통

하는 키워드를 짚어냈다. 트렌트 코리아 2024 공저자인 전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2024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분초사회 △호모 프롭프트 △육각형인사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야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라퀴드폴리탄 △돌봄경제 등을 꼽았다.

전미영 연구위원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며 "그 역량을 키우는 첫 출발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같이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싹틔움과도 같은 중소기업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줄어드는 매장, 확산하는 화장문화

수요 증가 속 혐오시설 인식으로 추가 확장 어려워 기존 시설 공동이용 방안 및 무주 설치 행정절차 계획

청명과 한식 기간을 맞아 장례문화의 변화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4월 초 청명과 한식 기간은 예부터 조상의 묘를 단장하거나 이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길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으나 최근엔 매장한 뼈를 수습해 화장하는 풍조로 바뀐 모습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화장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91.7%로 2001년 38.9%에 비해 약 2.4배 증가해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였다.

전북자치도의 경우는 평균 화장률이 90%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전년 대비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전북자치도의 화장 시설은 전주 승화원, 군산 승화원, 익산 정수원,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남원 승화원 등 5개소 27개로 운영중이며, 연간 2만9,160구를 화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늘어난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등 시설을 확대한 바 있으나, 화장시설을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신규 설치, 추가 확장 등이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화장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난 2023년 4월 전주시와 장수군이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023년 12월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시·군이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근 시군 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도내 화장 시설과 멀리 떨어진 무주군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 등 행정절차를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2027 장사 시설 신규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화장수용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변화된 장사문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민 인식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해 앞으로 수요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북자치도는 권역별 화장시설 운영으로 수용 능력을 갖췄으나 보건복지부,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 새판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육상풍력·수소기업 발굴 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각 중시책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주재로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의무사항으로, 2019년 4차 계획에 이어 5차 계획은 에너지 수급추이 전망, 안정적인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한

지역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해결이 시급한 에너지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협력회의에서 중점 논의한 주요현안들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동부권 중심 육상풍력 발전, 수소기업 발굴 등으로, 산업별로 육성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6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어,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발굴 등 경쟁우위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익공유형 동부권 중심 육상풍력 발전 및 수소기업 발굴은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산업 선점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해당 시군과 공감대 형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보다 심도있는 협력이 필요한 이익공유형 육상풍력 추진사업 등은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은 3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위원

회 구성, 도민 에너지기화단 모집, 도민워크숍 등을 추진해 도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며 10월 최종보고회와 더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지역특성과 자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재 도가 담면하고 있는 에너지 주요현안에 대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실있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민관협치 공동체활성화 리더 교육 연수

도, 시군 농촌 활력정책 공유

전북자치도가 농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활력 정책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 농촌활력사업 담당 공무원과 농촌현장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핵심리더 교육연수'를 2일부터 3일까지 부안 청호수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연수는 도와 시군의 농촌 활력 정책을 공유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농촌현장활동가에 대한 이해와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의 '민관협치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의 '중간지원조직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와 함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연수에 참석한 농촌리더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조직의 협력이 농촌활성화의 기본이다"며, "이번에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핵심리더 교육 연수'는 같은 일을 하며 고생하는 동료들과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활력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핵심 리더분들과 지자체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연수에서 논의해 주신 의견들이 상호 이해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도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